

『FILK 인증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FILK 인증업체의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증제도의 발전과 방재산업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FILK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난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협회 6층 회의실에서 「FILK 인증업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21개 FILK 인증업체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창규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대 이희식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품질인증제도와 기업 경쟁력 강화), '98 FILK인증 디렉토리(목록집) 설명, 초청 인사들의 의견 교환 및 제안, 오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이창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날로 새롭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창조행위로서 새로운 것의 창조는 시험연구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평소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했다.

또한, “사람의 소비 욕구가 다양화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고급화·다기능화 되고 있으며, 가격 이외의 품질, 디자인 등 비가격적인 요소들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바뀌는 과정이므로 시험연구소에서 FILK 인증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UL 등의 인증에 좀더 수월하고 간략한 절차로 상호 인정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가 협소하고 빈약하지만 향후 우리 나라 방재산업의 세계화를 선언하는 자리로 후일 기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 1시간 가량의 초청 특별 강연에 이어, 시험연구소 이경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FILK 인증업체 대표와의 의견 교환 및 제안 시간에는 FILK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건의와 업계가 갖고 있는 고충을 상호 교환하는 등 매우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인증업체가 FILK 인증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하였으며, 인증제품의 보험요율 자동화 요구, 인증업체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환의 필요, 국내 건축설계에서 FILK 인증시방서가 삽입되도록 요청, 인증 수수료 인하 요청,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FILK 인증을 게재토록 요청하는 등 그동안 겪었던 업계의 어려움과 우리 협회 및 시험연구소에 대한 바램이 진솔하게 상호 교환되었다.

이에 대한 시험연구소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FILK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및 시험연구소의 간행물인 “방재와 보험”, “방재기술지”와 FILK인증 디렉토리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책 및 대형 산업체에 FILK 인증품 시방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대형건물 설계시 FILK 인증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FILK 인증업체 및 품목 등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소화가 인증업체인 신평소방(주) 심재길 대표이사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불편한 몸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FILK 인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임직원, 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